

보도사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임현아
이메일	lha8170@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58

보 도 자 료

2023년 극장의 위기, 한국영상자료원이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 ① 국내 최초 공개되는 미국 초기 3D 단편, 국내에서 최초 촬영된 3D장편 <사격중지> 상영
- ② 클라라 보우의 대표작 <잇>, 재즈 음악과 함께 라이브 복합공연
- ③ <마음의 고향>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등 스크린에서 만나는 국내외 4K 디지털 복원작
- ④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돌아오지 않는 해병> 4K 복원판 최초 공개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4월 극장 총 매출액은 707억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4월 전체 매출액 평균(1,078억 원)의 65.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4월 전체 관객 수는 697만 명으로 2017~2019년 4월 전체 관객수 평균(1,287만 명)의 절반 정도인 54.2%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팬데믹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극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이 오는 8월 12일까지 열리는 시네마테크 KOFA “발굴, 복원 그리고 초기영화로의 초대” 기획전을 통해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① 국내 최초 공개되는 3D 단편모음 포함, 할리우드 초기 3D영화들이 한 자리에!

팬데믹 이전에도 극장의 위기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40년대 말 텔레비전의 등장이다. 당시 미국은 가정용 TV가 보편화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이 크게 감소하였고, 할리우드는 관객을 다시 극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TV 화면으로는 볼 수 없는 3D 입체영화를 본격적으로 제작했다. 3D영화는 무성영화 초기부터 등장했지만, 1950년대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대량 제작이 되었던 것. 비록 3D영화 제작은 기술적 한계로 지속되지 못했지만 1950년대 초 미국 할리우드가 극장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입체영화를 적극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영상자료원은 70여 년 전 극장의 위기 속에서 등장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초기 3D 고전영화 9편을 한 자리에 모았다.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세 작품(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작된 3D 단편영화를 모은 <희귀한 3-D>, 한국전쟁 중 한국의 전선에서 직접 찍고 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이 출연하는 세미-다큐 형식인 <사격 중지>(1953), MGM 제작 첫 3D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1953)을 포함, 최초의 수중 3D 촬영작품으로 기록된 <검은 늪지대의 생명체>(1954), 국내에서 3D로 처음 볼 수 있는 존 웨인 서부극영화 <혼도>(1954), 개봉 당시 큰 화제와 흥행 돌풍을 일으킨 3D 호러영화 <밀랍의 집>(1953), 알프레드 히치콕의 유일한 3D 영화 <다이얼 M을 돌려라>(1954) 등 할리우드 3D영화 황금기의 대표작을 만

날 수 있다. 아울러, 2010년대 관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휴고>(2011)와 로버트 저메키스의 <하늘을 걷는 남자>(2015)도 3D로 함께 상영한다.



<희귀한 3-D>



<사격 중지>



<검은 늑지대의 생명체>

② 원조 “잇 걸” 클라라 보우의 대표작 <잇>, 재즈 음악과 함께 라이브 복합공연으로 재탄생!

한국영상자료원은 음악, 연극, 미술 등 인접 예술 분야를 융합하여 국내외 주요 고전 및 독립영화를 재해석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영상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영상자료원은 <청춘의 십자로> 변사공연(2008), <이국정원> 라이브 더빙쇼(2014), <만추> 낭독공연(2015), <필름판소리, 춘향> 공연(2016), <둥글고 둥글게>(2020) 시청각 프로젝트, <노스페라투-현絃의 그림자>(2022) 음악공연,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2022) 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2023년 영화의 문화·예술·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It x Jazz : 김오키 무성영화 라이브 음악공연>으로 관객들을 극장으로 초대한다.

<잇>(클라렌스 G. 배저, 1927)은 클라라 보우(1905~1965)를 당대 최고의 배우로 만들어 준 흥행작으로 '자기력으로 다른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질'로 정의되는 '잇 걸(it girl)'로 불렸다. <맨트랩>(1926), <윙스>(1927) 등 인기작을 포함하여 46편의 무성영화에 출연한 그녀는 1929년 "토키" 배우로서도 성공적으로 변신하여 11편의 유성영화에 등장하였다. <잇>은 오랫동안 소실되었다고 알려졌으나, 1960년대 프라하에서 질산염 필름 사본이 발굴되어 현재는 미국 국립 의회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영상자료원은 파라마운트가 2022년 복원한 <잇>을 실험적인 재즈 음악으로 재해석한 라이브 복합공연으로 선보인다.

제11회 한국대중음악상 재즈크로스오버 최우수연주상을 수상한 김오키의 색소폰 연주, 2013년 전미작곡가협회 재즈작곡 부문 루이 암스트롱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진수영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 재즈 앨범 후보에 오르는 등 높은 음악적 평가를 받는 재즈 베이시스트 정수민의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초기 무성영화 상영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잇> 스틸이미지



공연 홍보물 이미지

③ 4K 복원으로 재탄생한 시대를 넘나드는 고전 명작, 극장 스크린에서 관람한다!

영상자료원은 매년 <발굴, 복원 그리고 초기영화로의 초대>를 통해 국내외에서 디지털 복원된 고전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복원작을 상영하여 시대를 넘나드는 고전 명작을 깨끗한 화질로 극장 스크린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금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밤의 강>(요시무라 코사부로, 1956), 지난해 칸국제영화제 클래식 섹션에서 상영된 체코 여성감독 베라 치틸로바의 <데이지즈>(1966) 및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데뷔작 <버진 수어사이드>(1999)의 4K 디지털 복원작을 비롯하여, 봉준호 감독이 영국 <사이트 앤 사운드>에 '위대한 영화'로 선정한 <분노의 주먹(성난 황소)>(마틴 스코세이지, 1980) 4K 복원작 등 국내에서 만날 수 없었던 9편의 해외 복원작이 상영된다.

디지털 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한국 고전 역시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1950년 프랑스와 문화 교류 차원에서 교환된 영화로 프랑스에서 16밀리 프린트를 1993년 기증받아 영화의 실체를 알 수 있었던 <마음의 고향>(윤용규, 1949), 1977년 SF 애니메이션 영화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1977), 한국적 공포영화의 전형을 제시한 이용민 감독의 공포영화 <살인마>(1965) 등이 이번 특별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며,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던 윤이상 작곡가의 음악이 빛나는 <낙동강>(전창근, 1952) 등 총 6편의 한국고전 복원작이 상영된다. 특별히 <낙동강> 상영과 더불어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김원철 음악평론가와 정종화 학예연구팀장의 대담이 준비되어 있다.



<낙동강>



<데이지즈>



<마음의 고향>

④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6월 22일 <돌아오지 않는 해병> 4K 복원판 최초 공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 이만희 감독의 1953년작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4K 복원되어 최초로 공개된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종전(1953년) 10년 후 제작된 작품으로,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영화인들의 생생한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복원판과 함께 영상자료원이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 발굴한 <돌아오지 않는 해병> 미국 개봉판 (마린 배틀그라운드)을 상영하여 의미를 더한다. 영화 상영 후 전쟁기념관 고한빈 학예연구사의 작품 해설과 <돌아오지 않는 해병> 미국 수출사에 대해 영상자료원 최영진 프로그래머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복원과 상영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인 한국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 복원 그리고 초기영화로의 초대>는 오는 8월 12일까지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개최되며, 모든 상영은 무료이다. 자세한 일정은 영상자료원 홈페이지(www.koreafil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네마테크KOFA 발굴, 복원 그리고 초기영화로의 초대>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reafilm.or.kr/cinematheque/programs/PI_01469

[첨부자료]

1. 3D영화 상영

- 일시 : 7월 28일 ~ 8월 12일 (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 시네마테크KOFA (서울 마포구 상암동)
- 상영작

작품명	작품정보	러닝타임	비고
희귀한 3-D	1922-1953	94	
밀랍의 집	1953, 안드레 데 토드	90	
키스 미 케이트	1953, 조지 시드니	109	
사격중지	1953, 오웬 크럼프	75	
혼도	1953, 존 패로우	84	
검은 늪지대의 생명체	1953, 잭 아놀드	79	
다이얼 M을 돌려라	1953, 알프레드 히치콕	105	
휴고	2011, 마틴 스콜세지	128	
하늘을 걷는 남자	2015, 로버트 저메키스	123	

2. <It x Jazz : 김오키 무성영화 라이브 음악공연>

- 일시 : 06월 16일 ~ 06월 17일 / 총 2회
- * 당일 현장 취재를 원하시는 언론사는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장소 : 시네마테크KOFA (서울 마포구 상암동)
- 공연소개 : <It>(클라렌스 G. 배저, 1927)은 1920년대 무성영화에서 1930년대 유성영화 전성기로 돌입하기에 앞서, 미국 사회의 단면을 포착한 작품으로 당시 대표적인 '잇걸(it gir)'로서 <바빌론>(2022), <아티스트>(2011) 등 후대 많은 작품의 여성 캐릭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배우 클라라 보우의 영화적 재능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예술융합영상공연은 2022년 파라마운트가 복원한 무성영화 <It>을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함께 전성기를 누린 '재즈' 음악을 통해 라이브 연주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뮤지션(김오키 색소폰 연주가, 진수 영 피아노 연주가, 정수민 베이스 연주가)들의 초청 연주를 통해 무성영화 상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객들에게 초기영화 상영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적 체험을 제공한다.
- 공연자 정보

작곡/연주자	공연 역할 및 이력
김오키	- o 색소폰 연주, 작곡 - o 수상 - 2020 제17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 2020 제17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재즈 음반 - 2014 제11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최우수연주상 - o 정규앨범 발매 - Cherubim`s Wrath (천사의 분노) (2013), 격동의 시간여행 (2015), 거대한 뿌리 (2016), LUVOKI (2016), fuckingmadness (2017), 피스투아우어술 (2017), 퍼블릭도메인포미 (2018), 새턴메디테이션 (2018), 스피릿선발대 (2019), 스피릿선발대 재해석 (2019), 포 마이 엔젤 (2020), 광경수 오케스트라 (2020), Big Picture(2020), Yun Hyong-keun (2020), Amoeba Culture Presents "Then to

	Now" (2020), Everytime (2021), 편견에 대하여 (2021), 스트레인저, 트루 뷰티 (2021), 안부 (2022), 러브플라워 (2022) o 공연 -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DMZ 락 페스티벌, 레인보우 페스티벌, 서울재즈 페스티벌, 후지락 페스티벌, 일본, 오키나와, 워싱턴, 뉴욕, 홍콩, 유럽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덴마크) 투어 PKM 갤러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등 공연
진수영	o 피아노 연주 o 뉴욕에서 재즈 공부를 마치고 진수영재즈오케스트라 및 테호, 김오키빠킹매드니스, 새턴발라드 그리고 백현진 등과 함께 공연을 지속하고 있다. 20대 학업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2015년에는 진수영재즈오케스트라의 앨범 [The Fables]를 발표하였다. 이후 [밤, 물 빛], [Paraphrase],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를 발표하며 아름다운 솔로 연주를 통해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o 2013년 ASCAP (전미작곡가협회) 재즈작곡 부문 Louis Armstrong 수상 o 듀오 앨범 [Original Intension], 빅밴드 앨범 [The Fables] 발매.
정수민	o 베이스 연주 o 첫 번째 앨범 [Neoliberalism]으로 데뷔 후 정규 2집 통감, 3집 Lament를 발매했다. o EBS 스페이스 공감 한국 재즈의 새 얼굴, 재즈피플 선정 베스트 재즈 음반 20선, 포크 라노스 -Best Albums of 2021>, 한국 대중음악상 재즈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높은 음악적인 평가를 받는 재즈 베이시스트이다.

3. 4K 복원전

- 일시 : 06월 01일 ~ 08월 12일 (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 시네마테크KOFA (서울 마포구 상암동)
- 상영작

작품명	작품정보	러닝타임	비고
마음의 고향	윤용규, 1949	76	
낙동강	전창근, 1952	46	관객과의 대화 (김원철 음악평론가)
살인마	이용민, 1965	92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임정규, 1977	78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	김정옥, 1987	114	
너에게 나를 보낸다	장선우, 1994	109	
밤의 강	요시무라 코사부로, 1956	104	
데이지즈	베라 치틸로바, 1966	76	
미드나잇 카우보이	존 슐레진저, 1969	113	
엄마와 창녀	장 으스타슈, 1973	219	
뤼미에르	잔느 모로, 1976	95	
사춘기 소녀	잔느 모로, 1979	90	
분노의 주먹(성난 황소)	마틴 스코세이지, 1980	129	
비디오드롬	데이빗 크로넨버그, 1983	89	
버진 수이사이드	소피아 코폴라, 1999	96	

4. <돌아오지 않는 해병> 4K 상영

- 일시 : 06월 22일
- 장소 : 시네마테크KOFA (서울 마포구 상암동)
- 관객과의 대화

- 14:00 <돌아오지 않는 해병> 4K 복원판 상영 - 110분
- 15:55 강연1: <돌아오지 않는 해병>과 참전세대의 전쟁 기억 (고한빈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 30분
- 16:25 강연2: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숨겨진 미국 배급 히스토리 (최영진 시네마테크KOFA 프로그래머) - 30분
- 16:55 토론 및 관객과의대화 (진행: 정종화 학예연구팀장) - 30분
- 19:00 <마린 배틀그라운드(<돌아오지 않는 해병> 해외개봉판)> 상영 - 86분